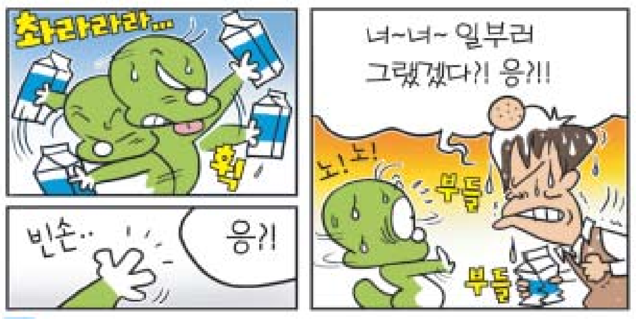
오려서 모아보세요

둘리 과학여행 〈29〉

? 우유는 왜 흔들어 마셔야 할까?



! 우유는 다양한 성분이 섞인 '불균일혼합물'이지요.

우유는 약 88%가 수분이고, 유지방, 유단백질, 비타민 등이 포함된 혼합물이지요. 따라서 성분들이 섞이도록 마시기 전에 잘 흔들어 줘야 맛이 좋아요.

둘리상식 둘리는 1995년, 만화 캐릭터 중 국내 최초로 우표 주인공이 되었지요.

한국과학창의재단 · ©DOOLYNARA

포켓몬 한자왕 〈29〉

포켓몬과 함께 한자를 배워요!

페라페는 사람의 말을 기억(記憶)해서 따라할 수 있어요.

기록할 기 記

쓰는 순서 ` 亠 亡 亡 言 言 言 訂 訂 記

활용단어

日記(일기)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
記錄(기록)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음.

페라페
타입 노말, 비행
분류 음표포켓몬
키 0.5m **몸무게** 1.9kg
진화 없음

오늘의 한자를 함께 써 봐요!

記 記

©1997 Nintendo/Pokémon.

어린이 명작동화 Cinderella 〈13〉

Cinderella is working in the kitchen. The Prince sees her. "She must try on the shoe," he says. "Cinderella is only a kitchen girl," yell her sisters. "Every woman must try," says the Prince.

신데렐라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왕자가 그녀를 봐요. "저 사람도 구두를 신어 봐야 해요." 왕자가 말해요. "신데렐라는 부엌데기일 뿐이에요!" 언니들이 소리쳐요. "모든 여자들이 다 신어 봐야 해요." 왕자가 말해요.

Quiz Cinderella's sisters say, "Cinderella must try on the shoe."
ⓐ True ⓑ False

ⓐ [정답]

제공 YBM ECC www.ybmecc.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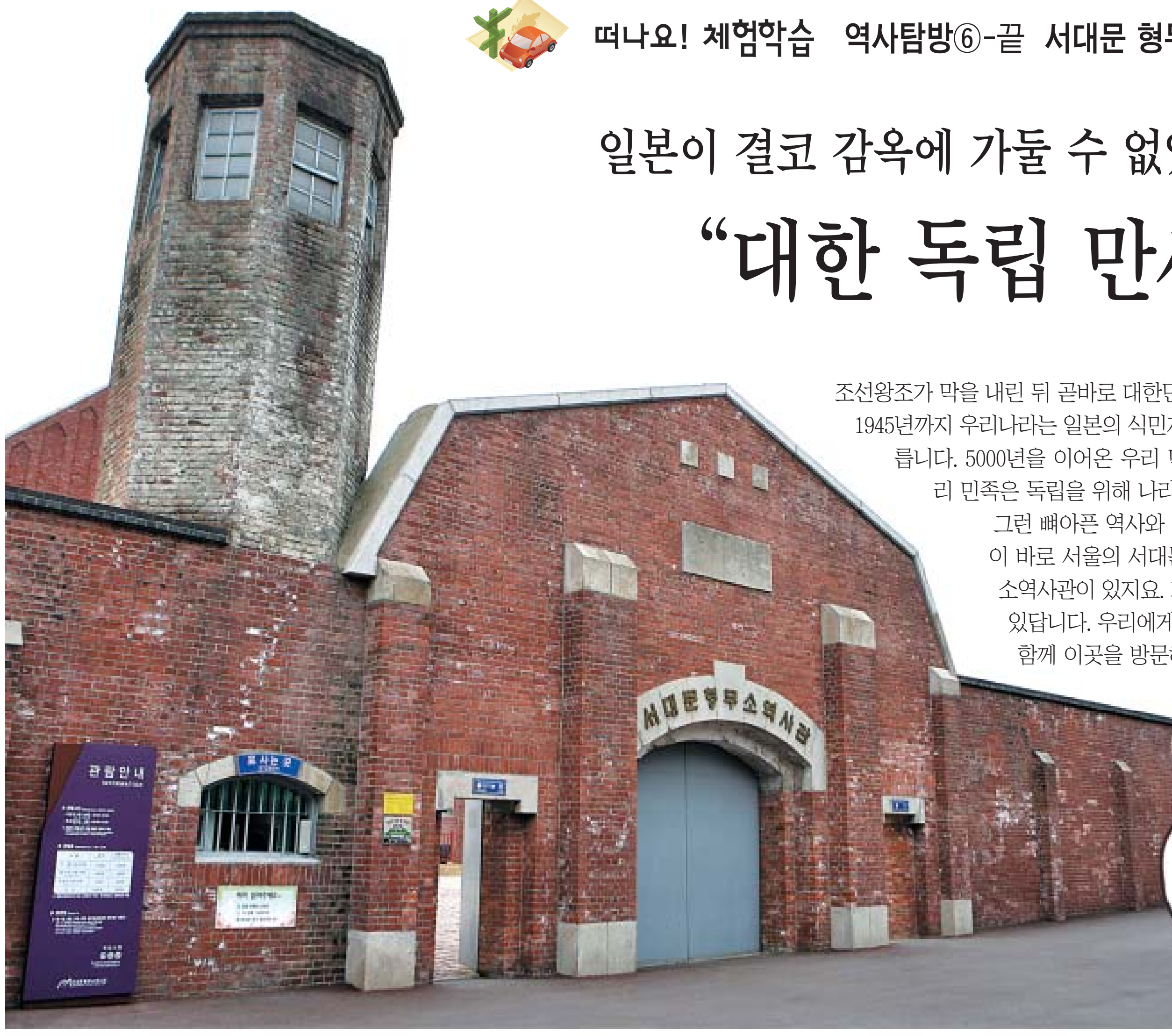
요일별 순서

월: 재미있는 과학
화: 동화작가가 들려주는 책이야기
수: NIE(신문활용교육)
목: 떠나요! 체험학습
금: 이미지로 생각해요

떠나요! 체험학습 역사탐방⑥-끝 서대문 형무소·독립문

일본이 결코 감옥에 가둘 수 없었던 우리 민족의 외침

"대한 독립 만세!"



조선왕조가 막을 내린 뒤 곧바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입니다. 이 시기를 '일제 강점기' 라고 부릅니다. 5000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시기였지요. 이때 우리 민족은 독립을 위해 나라 안팎에서 줄기차게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런 뼈아픈 역사와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의 서대문독립공원입니다. 이곳에는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이 있지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내리면 쉽게 찾아갈 수 있답니다. 우리에게 다시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함께 이곳을 방문해볼까요?

나 유관순,
나라를 위해
끝까지
싸울거야!
나도!

그림=정서용

고종과 대한제국

서대문독립공원으로 가는 동안 고종 임금의 생애를 되새겨보세요. 식민지 시대와 독립운동이 고종 임금과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1863년 조선의 제26대 왕에 오른 고종은 숱하게 수난을 겪었습니다. 일본·미국·프랑스·러시아 등 외국 세력들이 서로 조선 땅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세력 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1895년 일본은 명성황후를 시해(죽임을 당함)하는 '을미사변' 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고종은 1897년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임을 세계만방에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외국의 침략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민족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죠. 그러나 1905년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을사늑약이 체결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고종과 고종의 비 명성황후의 생애에 대해 자세히 알려면 경기도 여주군의 명성황후생가(031-887-3575)와 명성황후기념관을 방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독립협회와 독립문

인왕산과 안산을 뒤에 두고 우뚝 선 독립문은 참으로 늠름해 보입니다. 독립협회가 민족의 자주독립을 상징하기 위해 1898년에 세웠습니다. 중국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영은문을 헐어버리고 바로 그 자리에 독립·자유·개혁 정신을 드러내고자 민족의 기금을 모아 지은 것입니다. 독립문 현판 아래 방패를 자세히 볼까요? 대한제국 황실의 이화(李花·자두꽃)문양이 새겨져 있답니다.

독립문 뒤에는 서재필 박사 동상〈왼쪽 사진〉이 세워져 있네요. 서재필 박사는 독립협회를 만들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인 독립신문을 발간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서재필 박사 동상과 3·1 독립선언기념탑 중간의 서쪽에는 독립관이 있지요. 원래 이 건물은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기 위해 조선 태종 때 지어졌어요. 서재필 선생이 독립협회를 만들고 이 집을 독립관이라고 바꿔 부른 뒤 독립운동의 기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제가 헐어버렸습니다. 다시 복원된 독립관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의 위패 3000여 위가 모셔져 있으니 꽃다발을 가져가서 헌화해도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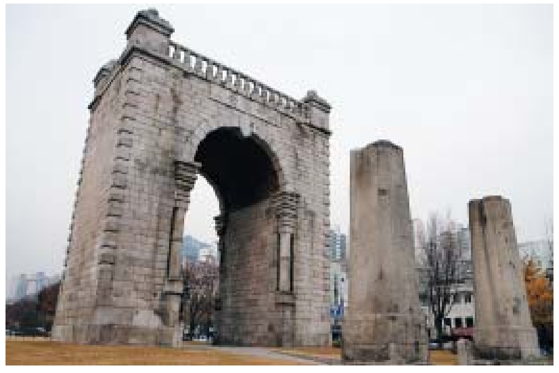
서대문형무소역사관

2년간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지난 6일 재개관한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90) 상설전시관의 지하 고문실에 가면 고문의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애국지사들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에 이르도록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남성 애국지사들은 각목과 채찍으로 얻어맞고,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여성 애국지사들도 의자에 묶인 채 곤봉으로 맞는가 하면 손톱 끝을 나무바늘로 쑤시는 고문을 당했지요. 참혹한 고문을 당한 애국지사들은 목숨을 잃거나 불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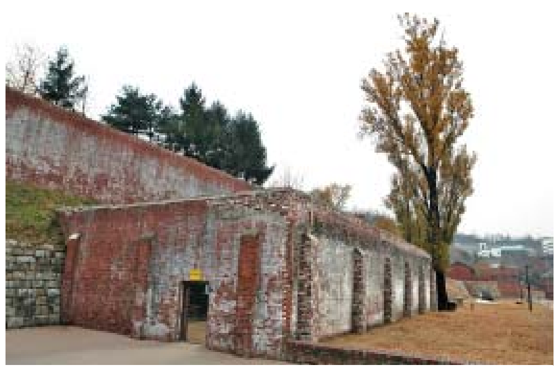
발걸음은 추모비로 이어집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사형당했거나 고문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형장 앞의 미루나무는 '통곡의 미루나무' 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애국지사들이 이 나무를 붙잡고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지요.

1908년 경성감옥이란 이름으로 문을 연 서대문형무소는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웠던 의병과 독립운동가, 해방이 된 후에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몸을 바친 사람들을 가두었던 감옥이었답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관람을 마치기 전에 유관순지하감옥도 꼭 살펴보세요. 이곳의 지하 독방은 유관순 열사가 모진 고문 끝에 순국한 곳이라 '유관순 굴' 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답니다.

글·사진=유연태·여행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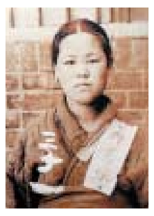


민족의 자주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 1963년 사적 제32호로 지정됐어요.



서대문형무소에 있는 사형장. 오른쪽 키 큰 나무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독립투사들이 붙잡고 눈물을 흘렸다는 '통곡의 미루나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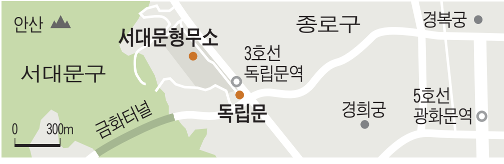
체험학습 보고서에 쏙!



1 옆에 있는 사진은 어느 애국지사의 수형기록표에 붙은 사진일까요?

2 독립문 현판 아래의 방패에는 어떤 문양이 새겨져 있는지 살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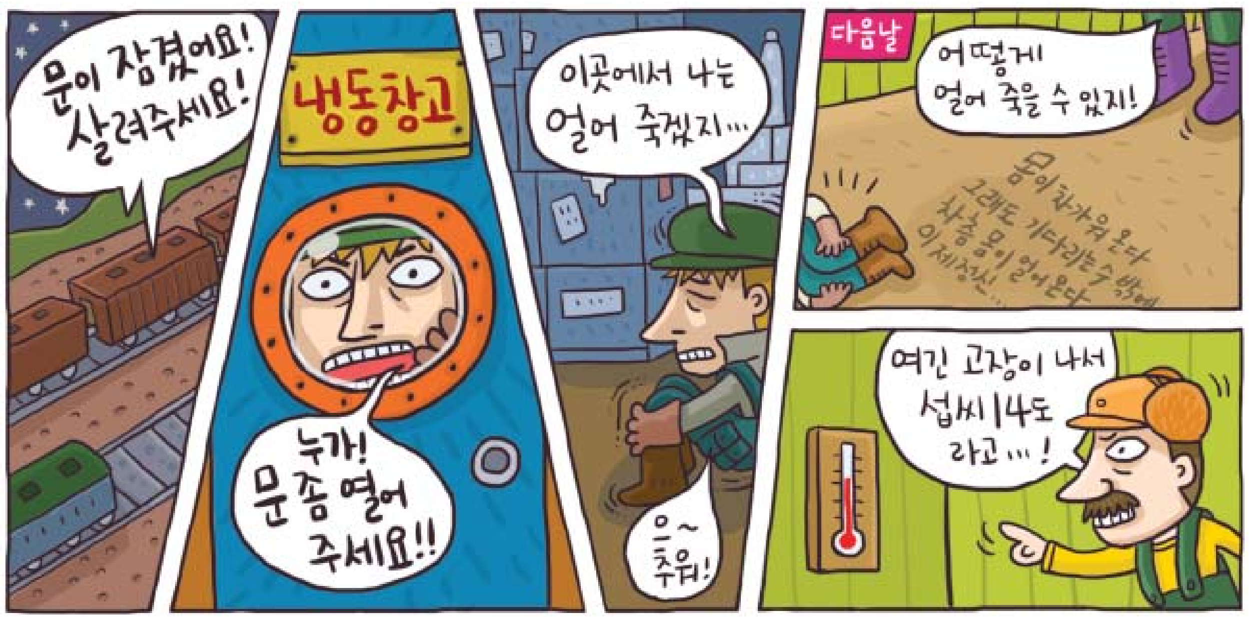
3 일제는 1905년 강제로 대한제국과 ( )을 맺어 외교권을 빼앗고 1910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괄호 안은 무엇일까요?



정답: ① 유관순 열사 ② 자두꽃(이화) ③ 을사늑약 또는 을사조약

도전! 창의퀴즈왕

고장 난 냉동차 안에 갇힌 아저씨… 왜 얼어죽었을까?


문이 잠겼어요! 살려주세요!
냉동창고
누가! 문 좀 열어 주세요!!
이곳에서 나는 얼어 죽겠지…
으~ 추워!
다음날
어떻게 얼어 죽을 수 있지!
몸이 차가워 온다 그래도 기다리는 수 밖에 차츰 몸이 얼어온다 이제 정신…
여긴 고장이 나서 섭씨 14도 라고…!

그림=정서용

고학년 어린이가 풀어보세요

이야기 하나

소련 철도국 직원 한 사람이 냉동차 속에서 일을 하다가 문이 닫혀 냉동차 안에 갇히게 됐어요. 그는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죠. 결국 그는 아무에게도 구조되지 못하고 밤새도록 냉동차 안에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며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직원 한 사람이 냉동차 문을 열었을 땐 그는 이미 얼어 죽은 후였지요. 냉동차 안 벽에는 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몸이 차가워 온다. 그래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차츰 몸이 얼어온다. 이제 정신이 몽롱해진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갇혀 있었던 냉동차는 고장이 나서 실제 내부 온도는 그리 춥지 않은 섭씨 14도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환기구가 있어서 그가 버틸 만한 산소도 충분히 있었고요. (내용 참고:이소라 '그림으로 읽는 생생 심리학'·그리고책)

창의력 문제 1

철도국 직원은 고장 난 냉동차 안에서 대체 왜 죽었을까요?

이야기 둘

인호는 무척 내성적인 아이예요. 친구들에게 쉽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새로운 친구에게는 말도 붙이기 힘들지요. 친구라고 해야 늘 함께 노는 몇 명이 전부예요. 또 수업시간에 발표라도 해야 하면 어찌나 떨리는지 얼굴부터 빨개졌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이 동네에 오래 살아서 인호가 겉으로 말은 잘 안 하지만 마음은 따뜻하다는 걸 아는 친구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호네 가족은 이제 다음 주면 아빠 회사 때문에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요. 인호는 벌써부터 새 친구를 어떻게 사귈지 걱정이 태산이네요. 새로운 아이들을 만난다는 두려움도 있고, 자신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지 자신도 없었어요.

창의력 문제 2

여러분이 인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법을 이야기해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의 교훈을 잘 생각하면서 말해보세요.

출제=안진훈·창의공학연구원 사무국장

※ 예시답안은 '모닝플러스(morningplus.chosun.com)'의 '알립니다' 코너에서 확인하세요.